

KLSI

ISSUE PAPER

제 139호
2020-20호
(2020.11.24)

www.klsi.org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결과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목차]

I. 비정규직 규모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sli.org/

<요 약>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위기의 영향으로 취업자(고용률)는 2019년 8월 2,736만 명(61.4%)에서 2020년 8월 2,709만 명(60.4%)으로 27만 명(1.0%p) 감소했고, 노동자는 2,056만 명에서 2,045만 명으로 11만 명 감소했다.

정규직은 1,200만 명에서 1,194만 명으로 6만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856만 명에서 850만 명으로 5만 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41.6%로 변함이 없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380만 명(18.5%)에서 393만 명(19.2%)으로 13만 명(0.7%p), 시간제는 316만 명(15.4%)에서 325만 명(15.9%)으로 9만 명(0.5%p), 호출근로는 75만 명(3.6%)에서 90만 명(4.4%)으로 15만 명(0.8%p) 증가했다.

파견용역은 80만 명(3.9%)에서 72만 명(3.5%)으로 8만 명(0.4%p), 특수고용은 53만 명(2.6%)에서 50만 명(2.4%)으로 3만 명(0.2%p), 임시일용직은 627만 명(30.5%)에서 588만 명(28.7%)으로 39만 명(1.8%p) 감소했다.

셋째,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1만 8,064원에서 1만 8,484원으로 420원(2.3%)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만 1,360원에서 1만 1,615원으로 255원(2.2%)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62.9%에서 62.8%로 0.1%p 확대되었다.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42.9시간에서 42.5시간으로 0.4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35.3시간에서 34.2시간으로 1.1시간 감소했다. 정규직은 월 임금이 331만원에서 336만원으로 5만원(1.6%)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71만원에서 173만원으로 2만원(1.0%)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임금격차는 51.8%에서 51.5%로 0.3%p 확대되었다.

넷째,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3.59배에서 3.64배로 확대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5.39배에서 6.25배로 확대되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5.8%에서 17.4%로 확대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1.6%에서 21.2%로 축소되었다.

다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240원(2.9%)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20만 명(10.7%)에서 204만 명(10.0%)으로 16만 명(0.7%p) 감소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339만 명(16.5%)에서 319만 명(15.6%)으로 20만 명(0.9%p) 감소했다.

시급제 노동자(215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만 명(1.1%)이고, 최저임금(8,590원)을 받는 사람은 96만 명(44.8%)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는 등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18-19년에는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저임금 계층이 감소했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에 힘입은 바가 컸다. 2020년에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저임금 계층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위기 이외에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2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50만 명(임금노동자의 41.6%)이고 정규직은 1,194만 명(58.4%)이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근로자가 393만 명(19.2%)으로 가장 많고, 시간제근로자(파트타임)도 325만 명(15.9%)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94.3%(850만 명 가운데 802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비정규직 규모 (202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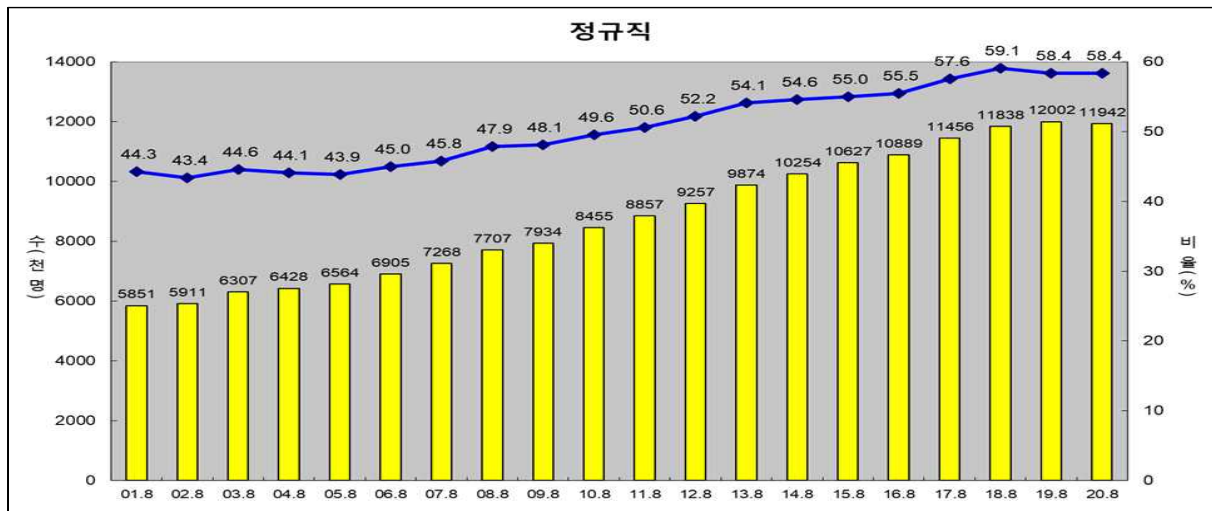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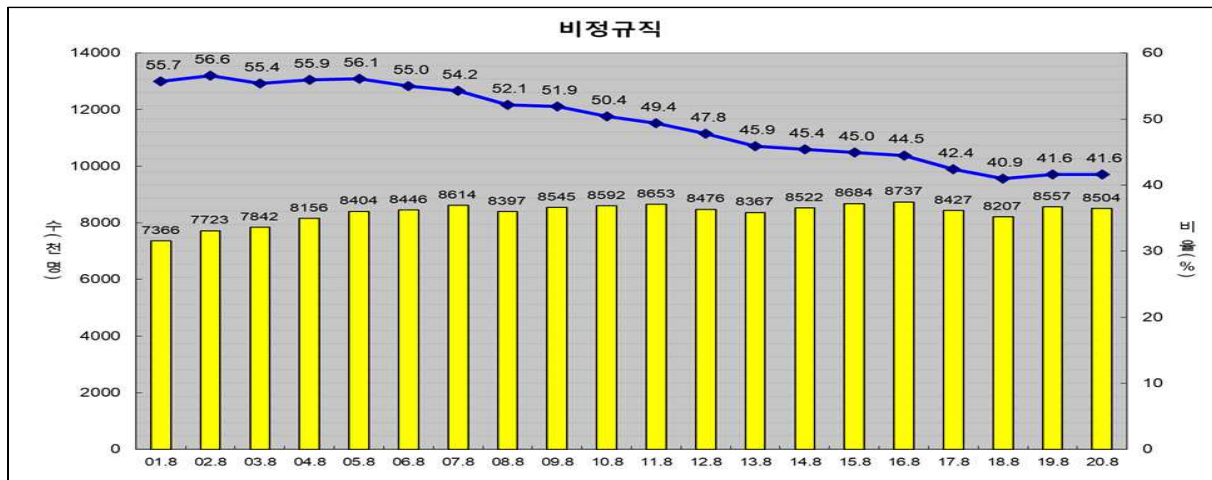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4,570	4,539	1,337	20,446	71.3	22.2	6.5	100.0	
정규직(2=1-3)	11,942			11,942	58.4			58.4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2,628	4,539	1,337	8,504	12.9	22.2	6.5	41.6	
고용계약	임시근로	2,147	4,539	1,337	8,023	10.5	22.2	6.5	39.2
	장기임시근로 ①		2,254	1,132	3,386		11.0	5.5	16.6
	한시근로 ② (기간제)	2,147	2,285	205	4,637	10.5	11.2	1.0	22.7
근로시간	시간제근로③	2,124	1,768		3,933	10.4	8.6	0.2	19.2
근로제공 방식	시간제근로③	598	2,128	526	3,252	2.9	10.4	2.6	15.9
	호출근로 ④			896	896		-	4.4	4.4
	특수고용 ⑤	19	445	34	498	0.1	2.2	0.2	2.4
	파견용역 (파견) ⑥	451	196	69	716	2.2	1.0	0.3	3.5
	(용역) ⑦	107	42	15	164	0.5	0.2	0.1	0.8
가내근로 ⑧	344	154	54	552	1.7	0.8	0.3	2.7	
	8	25	16	49	0.0	0.1	0.1	0.2	

비정규직은 2001년 8월(737만 명)부터 2007년 8월(861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8월(840만 명)부터 2016년 8월(874만 명)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증가했다. 2017년 8월(843만 명)에는 1년 사이 31만 명 감소했고, 2018년 8월(821만 명)에는 다시 22만 명 감소했다. 2019년 8월(856만 명)에는 35만 명 증가했지만, 2020년 8월(850만 명)에는 5만 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54.2%)부터 2018년 8월(40.9%)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8월(42.4%)에는 2.1%p 감소했고, 2018년 8월(40.9%)에는 1.5%p 감소했다. 2019년 8월(41.6%)에는 0.7%p 증가했지만, 2020년 8월(41.6%)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585만 명)부터 2019년 8월(1,200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8월(1,194만 명)에는 6만 명 감소했다. 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44.3%)부터 2005년 8월(43.9%)까지 4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 8월(45.0%)부터 2018년 8월(59.1%)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8월(58.4%) 0.7%p 감소했지만, 2020년 8월(58.4%)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그림 1]과 [표 2] 참조).

[그림 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표 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임금노동자	19,626	19,883	20,045	20,559	20,446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0,889	11,456	11,838	12,002	11,942	55.5	57.6	59.1	58.4	58.4
비정규직	8,737	8,427	8,207	8,557	8,504	44.5	42.4	40.9	41.6	41.6
임시근로	8,405	8,035	7,766	8,072	8,023	42.8	40.4	38.7	39.3	39.2
장기임시근로	4,754	4,527	4,166	3,645	3,386	24.2	22.8	20.8	17.7	16.6
한시근로	3,651	3,509	3,601	4,427	4,637	18.6	17.6	18.0	21.5	22.7
(기간제)	2,929	2,925	3,004	3,799	3,933	14.9	14.7	15.0	18.5	19.2
시간제근로	2,483	2,659	2,708	3,156	3,252	12.7	13.4	13.5	15.4	15.9
호출근로	863	792	801	748	896	4.4	4.0	4.0	3.6	4.4
특수고용	495	493	505	529	498	2.5	2.5	2.5	2.6	2.4
파견용역	898	873	785	797	716	4.6	4.4	3.9	3.9	3.5
(파견)	201	186	189	181	164	1.0	0.9	0.9	0.9	0.8
(용역)	696	688	595	616	552	3.5	3.5	3.0	3.0	2.7
가내근로	41	30	54	46	49	0.2	0.2	0.3	0.2	0.2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 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종사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2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22번 응답 2 & 문항 5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문항 54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5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57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55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55번 응답 3

☞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될 뿐,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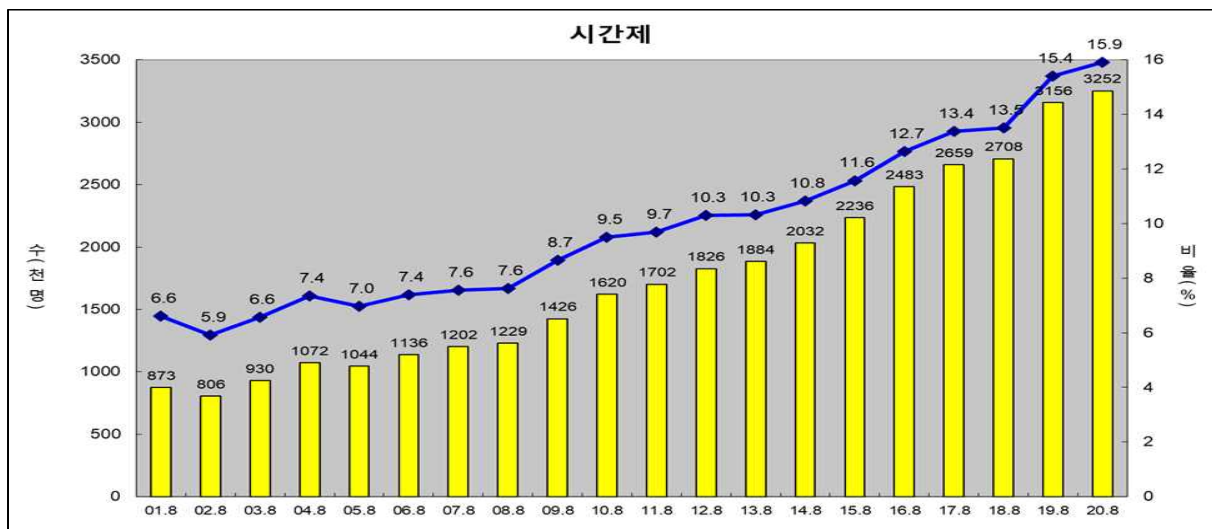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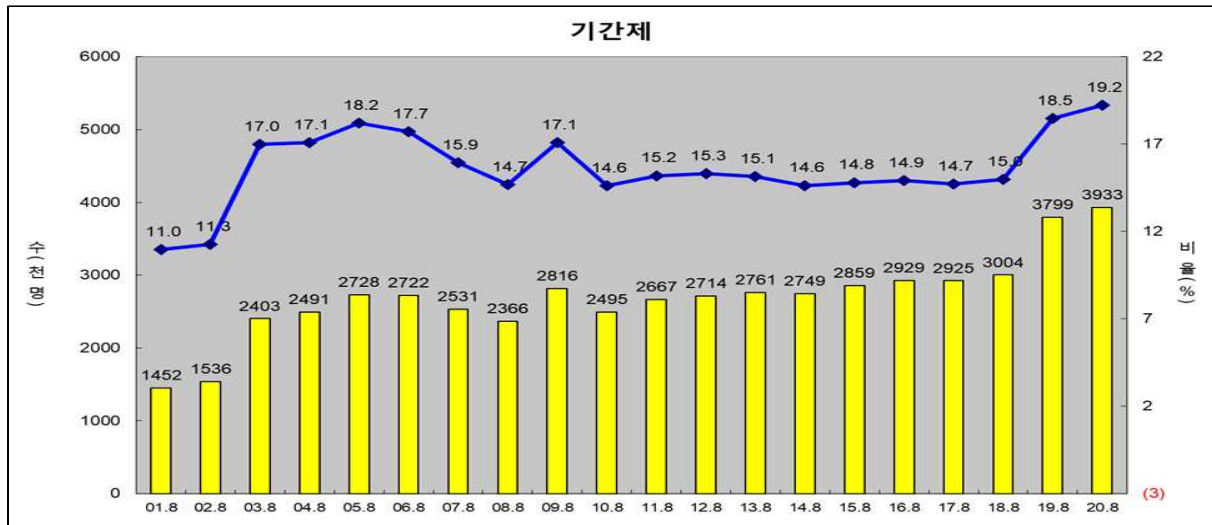
⑧ 가내근로: 문항 58번 응답 1

2. 세부 고용형태

세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는 2005년 8월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8월 237만 명(14.7%)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이며, 2010년 8월 250만 명(14.6%)에서 2018년 8월 300만 명(15.0%)으로 14~15%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 8월에는 380만 명(18.5%)으로 1년 사이 80만 명(3.5%p) 증가했고, 2020년 8월에는 393만 명(19.2%)으로 다시 13만 명(0.7%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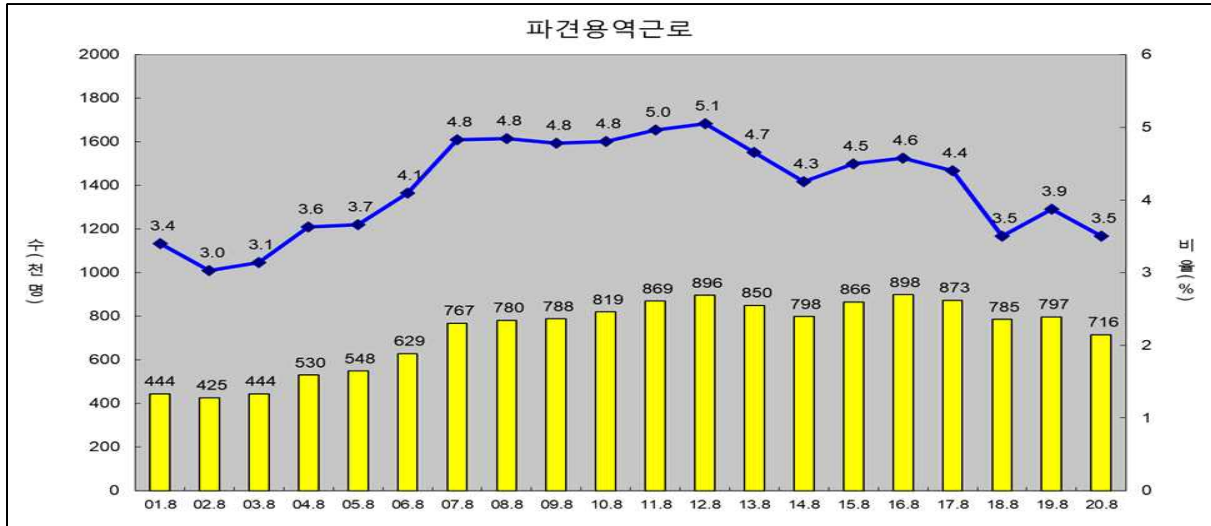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20년 8월 324만 명(15.9%)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2]와 [표 2] 참조).

[그림 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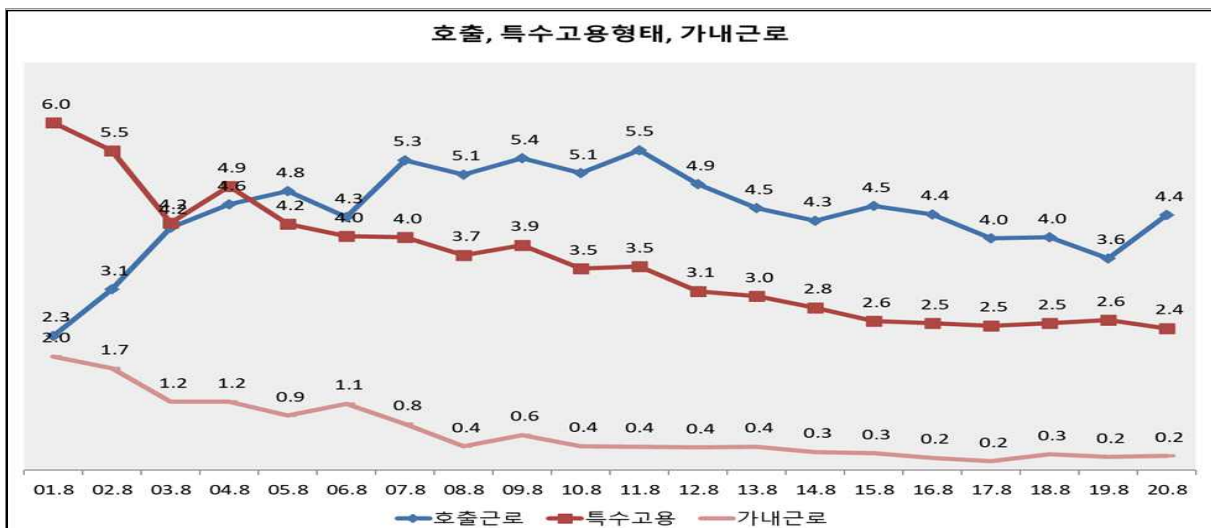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는, 2002년 8월 43만 명(3.0%)에서 2007년 8월 77만 명(4.8%)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7~2012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8월 90만 명(5.1%)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2016년 8월 90만 명(4.6%)에서 2018년 8월 79만 명(3.5%)으로 감소했다. 2019년 8월에 80만 명(3.9%)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8월에는 다시 72만 명(3.5%)으로 감소했다([그림 3]과 [표 2] 참조).

[그림 3] 파견용역근로



호출근로는 2011년 8월 96만 명(5.5%)을 정점으로 2019년 8월 75만 명(3.6%)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 8월에는 90만 명(4.4%)으로 1년 만에 15만 명(0.8%p) 증가했다. 특수고용은 2001년 8월 79만 명(6.0%)에서 2020년 8월 50만 명(2.4%)으로 감소했고, 가내근로도 같은 시기 26만 명(2.0%)에서 5만 명(0.2%)으로 감소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계나 정부 추산보다 크게 적은 것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기 때문이다([그림 4]와 [표 2] 참조).

[그림 4] 호출, 특수고용, 가내근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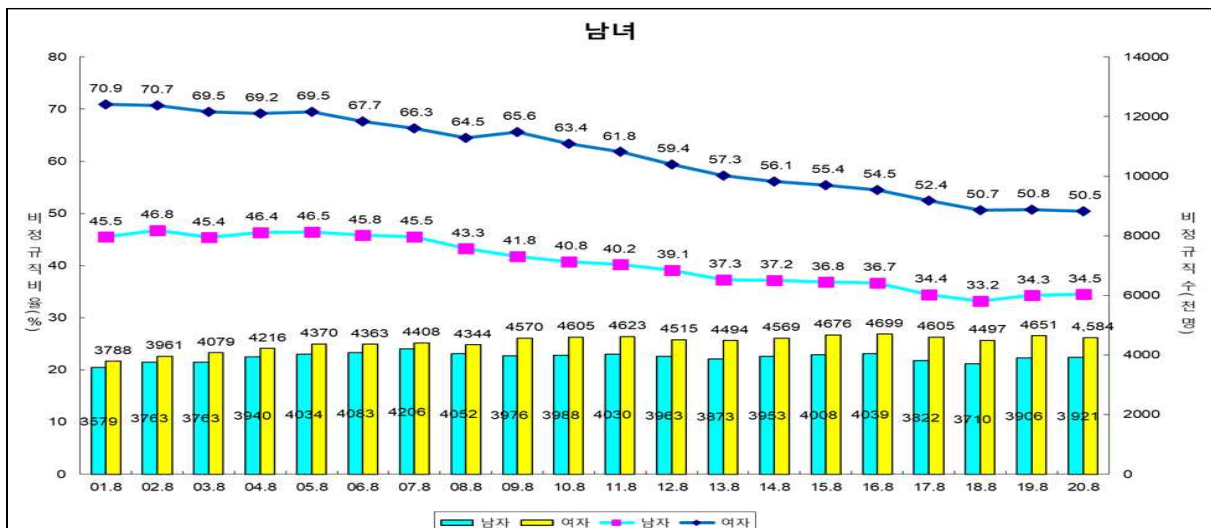
3.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744만 명(65.5%), 비정규직이 392만 명(34.5%)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450만 명(49.5%), 비정규직이 458만 명(50.5%)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 8월(70.9%)부터 2018년 8월(50.7%)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년 8월(50.8%)에 조금(0.1%p) 증가했지만 2020년 8월(50.5%)에 다시 감소했다. 남자는 2005년 8월(46.5%)을 정점으로 2018년 8월(33.2%)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년 8월(34.3%)에 1.1%p 증가했고, 2020년 8월(34.5%)에 다시 0.2%p 증가했다. 2007년 8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20만 명 많았는데, 2019년 8월에는 75만 명으로 격차가 확대되다가, 2020년 8월에는 52만 명으로 격차가 축소되었다([표 3]과 [그림 5] 참조).

[표 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2020년 8월)

		수(천 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1,362	9,085	100.0	100.0	55.6	44.4
정규직		7,441	4,501	65.5	49.5	62.3	37.7
비정규직		3,921	4,584	34.5	50.5	46.1	53.9
고용계약	임시근로	3,771	4,252	33.2	46.8	47.0	53.0
	장기임시근로	1,692	1,694	14.9	18.6	50.0	50.0
	한시근로	2,079	2,558	18.3	28.2	44.8	55.2
	(기간제)	1,800	2,133	15.8	23.5	45.8	54.2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915	2,337	8.1	25.7	28.1	71.9
근로제공 방식	호출근로	682	214	6.0	2.4	76.1	23.9
	특수고용	185	313	1.6	3.4	37.1	62.9
	파견용역	400	316	3.5	3.5	55.9	44.1
	(파견)	95	69	0.8	0.8	57.9	42.1
	(용역)	305	247	2.7	2.7	55.3	44.7
	가내근로	8	41	0.1	0.5	16.3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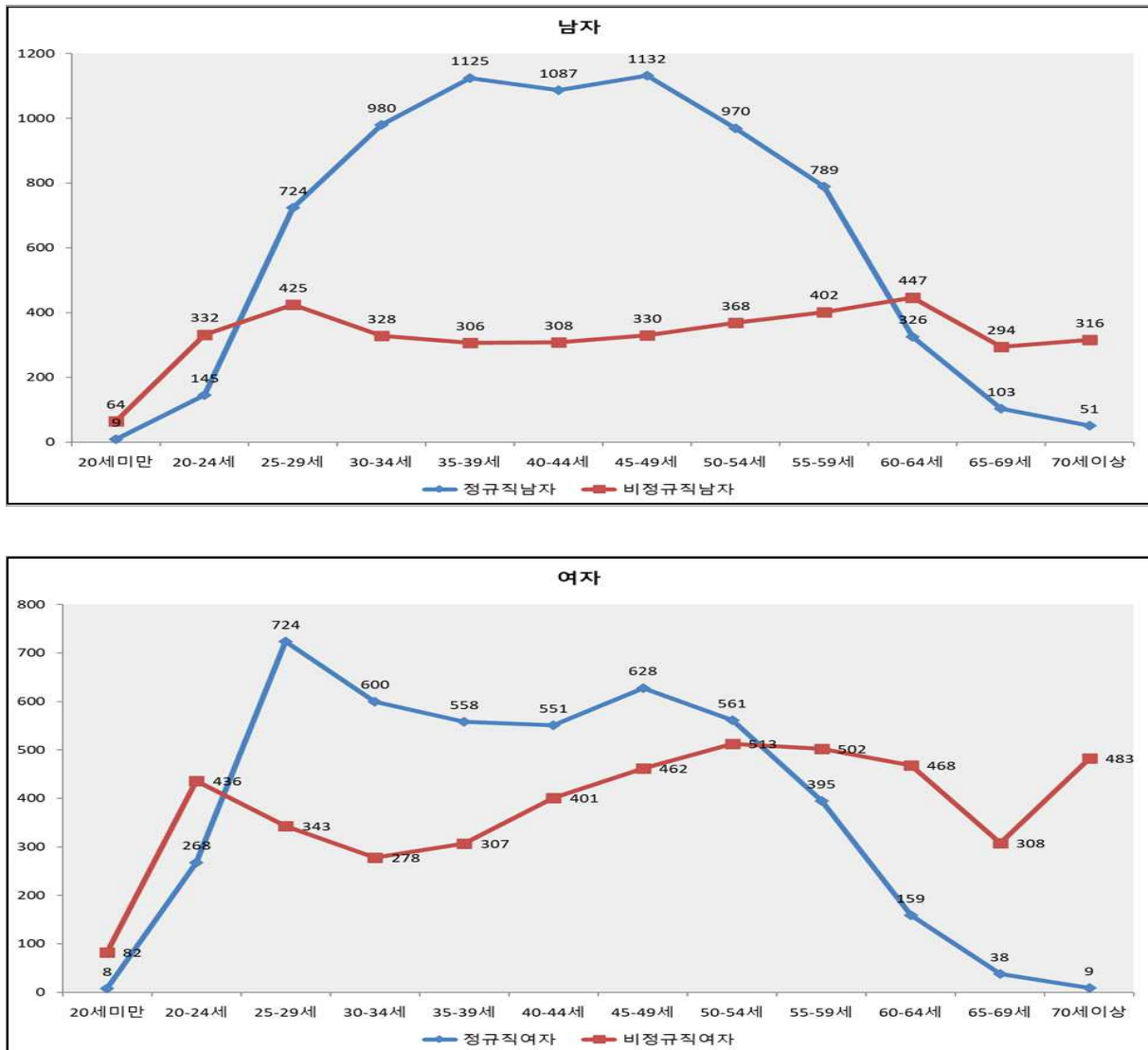
[그림 5]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4.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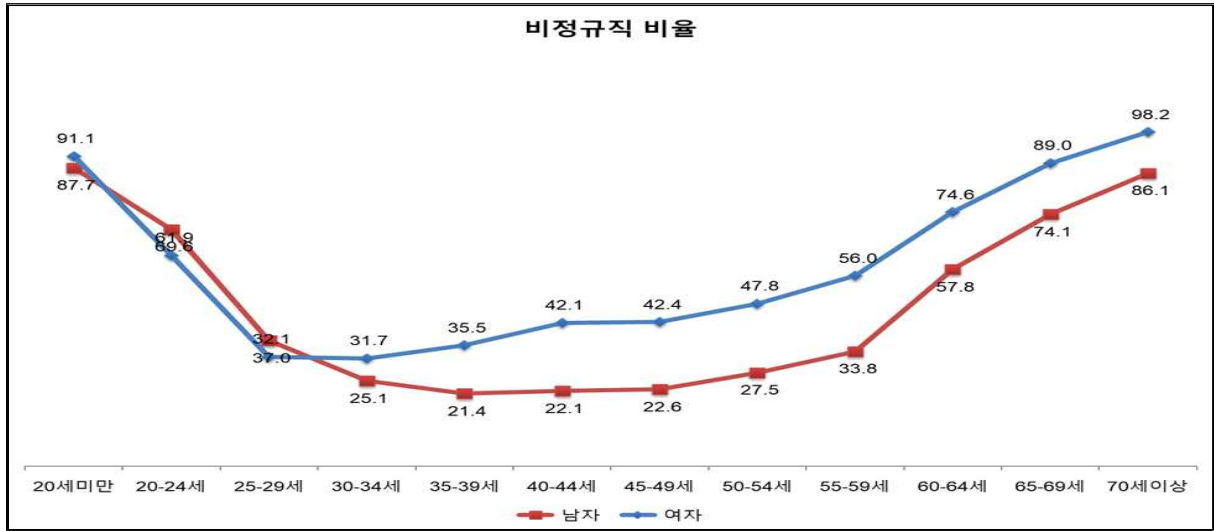
남자는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여자도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중고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고, 그밖에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72만 명)을 정점으로 40대 초반(55만 명)까지 감소하다가 40대 후반(63만 명)에 증가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28만 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에는 40만 명, 50대 초반에는 51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 6] 참조).

[그림 6]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 (2020년 8월, 단위: 천 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21~25%)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31.0%)을 저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 7] 참조).

[그림 7]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 (2020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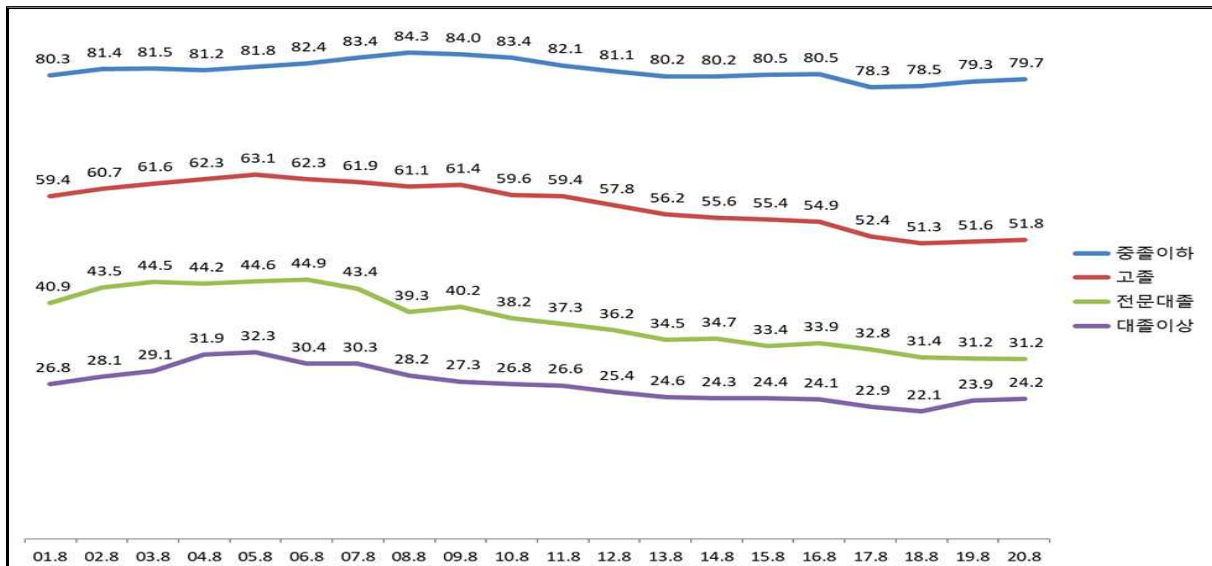
5. 학력

비정규직 850만 명 가운데 중졸 이하는 186만 명(21.9%), 고졸은 385만 명(45.2%)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571만 명(67.1)%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79.7%, 고졸 51.8%, 전문대졸 31.2%, 대졸 이상 24.2%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다([표 4]와 [그림 8] 참조).

[표 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2020년 8월)

	수(천 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338	7,426	2,980	7,702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75	3,580	2,051	5,836	20.3	48.2	68.8	75.8
비정규직	1,863	3,846	929	1,866	79.7	51.8	31.2	24.2
임시근로	1,797	3,661	860	1,704	76.9	49.3	28.9	22.1
장기임시근로	711	1,798	318	559	30.4	24.2	10.7	7.3
한시근로	1,086	1,863	542	1,145	46.4	25.1	18.2	14.9
(기간제)	948	1,457	477	1,052	40.5	19.6	16.0	13.7
시간제근로	947	1,422	265	619	40.5	19.1	8.9	8.0
호출근로	319	475	42	61	13.6	6.4	1.4	0.8
특수고용	42	246	76	134	1.8	3.3	2.6	1.7
과건용역	222	331	70	93	9.5	4.5	2.3	1.2
(파견)	28	73	25	38	1.2	1.0	0.8	0.5
(용역)	194	258	45	55	8.3	3.5	1.5	0.7
가내근로	14	16	7	12	0.6	0.2	0.2	0.2

[그림 8]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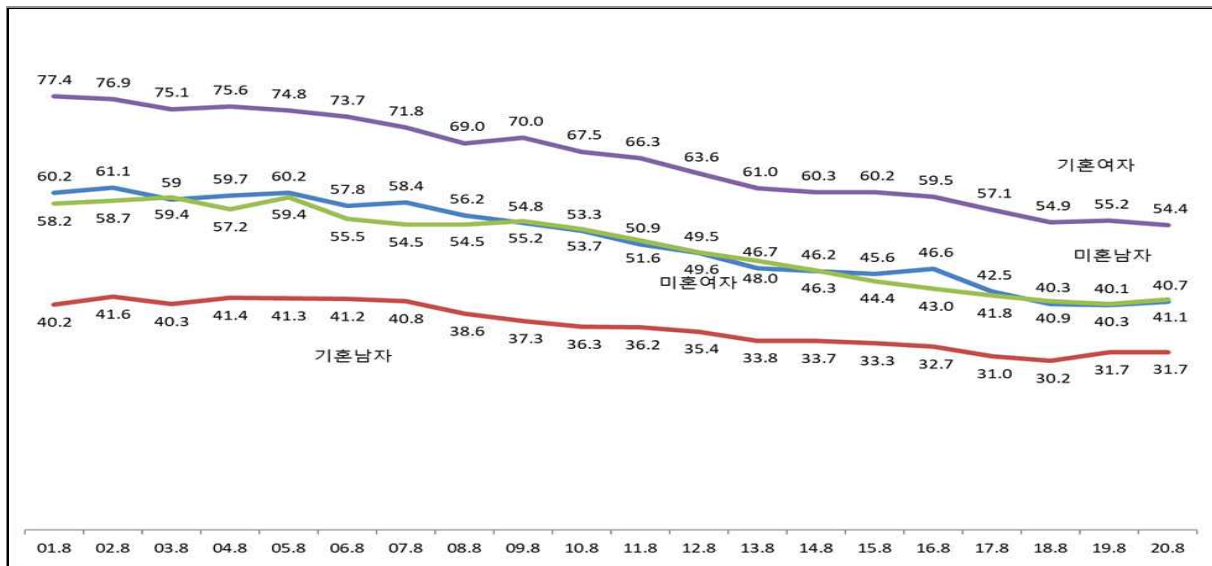
6.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50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48만 명(41.0%), 기혼남자는 249만 명(29.3%)으로 기혼자가 598만 명(70.3%)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40.7%, 기혼남자 31.7%, 미혼여자 41.1%, 기혼여자 54.4%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표 5]와 [그림 9] 참조).

[표 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2020년 8월)

	수(천 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3,503	7,858	2,678	6,407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2,077	5,364	1,577	2,924	59.3	68.3	58.9	45.6
비정규직	1,426	2,494	1,101	3,483	40.7	31.7	41.1	54.4
임시근로	1,382	2,390	1,062	3,190	39.5	30.4	39.7	49.8
장기임시근로	669	1,024	424	1,270	19.1	13.0	15.8	19.8
한시근로	713	1,366	638	1,920	20.4	17.4	23.8	30.0
(기간제)	569	1,231	478	1,654	16.2	15.7	17.8	25.8
시간제근로	403	512	524	1,813	11.5	6.5	19.6	28.3
호출근로	170	513	23	190	4.9	6.5	0.9	3.0
특수고용	50	135	31	283	1.4	1.7	1.2	4.4
파견용역	100	300	29	287	2.9	3.8	1.1	4.5
(파견)	29	66	10	60	0.8	0.8	0.4	0.9
(용역)	70	234	20	227	2.0	3.0	0.7	3.5
가내근로	4	4	4	37	0.1	0.1	0.1	0.6

[그림 9]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7. 산업

비정규직 5명 중 3명(484만 명, 56.9%)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3만 명), 건설업(99만 명), 숙박음식점업(95만 명), 도소매업(92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85만 명) 등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99.0%(가사서비스업), 최소 17.6%(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로 산업별 격차가 크다([표 6] 참조).

[표 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20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정 규직	기간 제	시간 제	특수 고용	파견 용역	비정 규직	기간 제	시간 제	특수 고용	파견 용역
농업임업어업	96	27	16	2		80.0	22.5	13.3	1.7	
광업	3	2				27.3	18.2			
제조업	752	376	144	6	7	19.1	9.6	3.7	0.2	0.2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6	10	1	2		22.2	13.9	1.4	2.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활환경복원	38	27	11		1	26.8	19.0	7.7		0.7
건설업	993	194	154		30	59.7	11.7	9.3		1.8
금융보험업	263	44	29	203	1	35.1	5.9	3.9	27.1	0.1
부동산임대업	205	120	47	11	30	56.5	33.1	12.9	3.0	8.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93	125	47	3	4	19.6	12.7	4.8	0.3	0.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849	531	160	23	581	66.6	41.7	12.6	1.8	45.6
도매소매업	921	243	373	97	18	42.4	11.2	17.2	4.5	0.8
운수업	267	136	56	37	3	32.8	16.7	6.9	4.5	0.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136	92	29	3	6	17.6	11.9	3.8	0.4	0.8
숙박음식점업	946	149	523	4	9	72.4	11.4	40.0	0.3	0.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19	79	102	13	1	65.6	23.7	30.5	3.9	0.3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318	93	127	41	5	47.0	13.8	18.8	6.1	0.7
가구내고용활동 등	101	6	59			99.0	5.9	57.8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413	399	303			36.4	35.2	26.7		
교육서비스업	641	381	352	50	3	43.3	25.7	23.8	3.4	0.2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131	895	716	4	17	48.6	38.4	30.8	0.2	0.7
국제외국기관	4	3	2			21.1	15.8	10.5		
전 산업	8505	3932	3251	499	716	41.6	19.2	15.9	2.4	3.5

8.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504만 명, 59.2%)은 단순노무직(278만 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26만 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79.4%(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4.6%(관리직)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표 7] 참조).

[표 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2020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 용역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파견 용역
관리자	52	42	7		7	14.6	11.8	2.0		2.0
전문가	1,174	767	401	64	25	25.6	16.8	8.8	1.4	0.5
사무직	857	539	295	12	45	19.4	12.2	6.7	0.3	1.0
서비스직	1,317	491	743	20	59	64.9	24.2	36.6	1.0	2.9
판매직	939	176	351	297	37	57.8	10.8	21.6	18.3	2.3
농림어업숙련직	52	22	8	2	1	72.2	30.6	11.1	2.8	1.4
기능직	832	226	124	6	58	47.2	12.8	7.0	0.3	3.3
장치기계조작조립원	499	280	50	29	47	23.7	13.3	2.4	1.4	2.2
단순노무직	2,782	1,391	1,272	67	439	79.4	39.7	36.3	1.9	12.5
전 직업	8,504	3,934	3,251	497	718	41.6	19.2	15.9	2.4	3.5

9.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5.9%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69.5%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용역근로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간제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형을 그리고, 특수고용형태는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8] 참조).

[표 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202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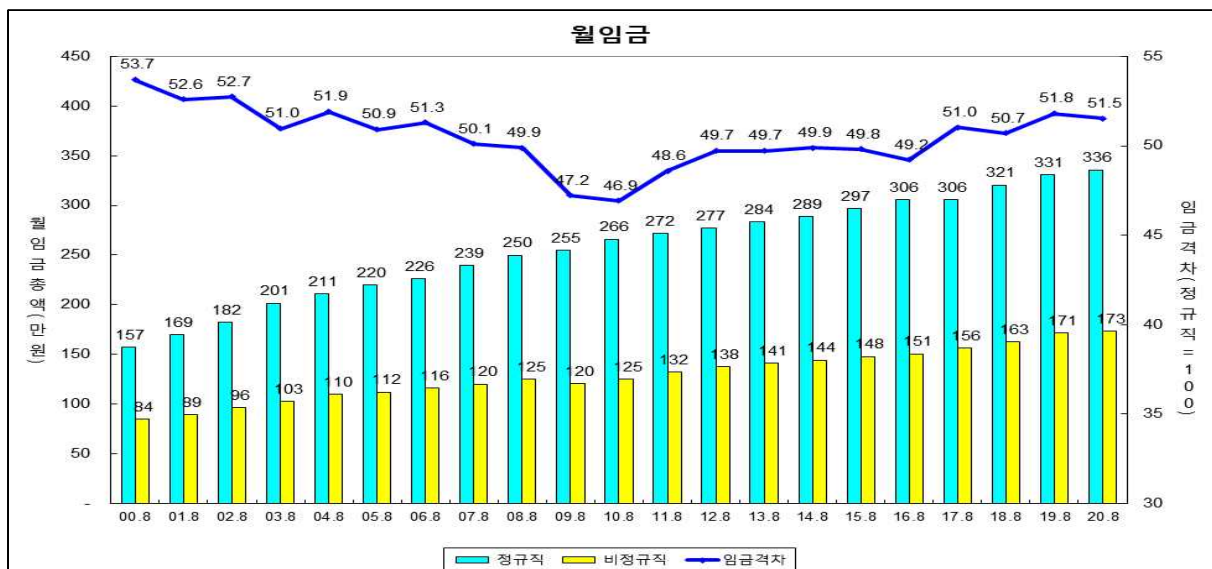
	수(천 명)						비율(%)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649	3,511	4,611	3,997	1,979	2,7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112	1,666	2,661	2,742	1,489	2,272	30.5	47.5	57.7	68.6	75.2	84.1
비정규직	2,537	1,845	1,950	1,255	490	428	69.5	52.5	42.3	31.4	24.8	15.9
임시근로	2,442	1,747	1,819	1,163	447	405	66.9	49.8	39.4	29.1	22.6	15.0
장기임시근로	1,498	844	640	288	84	32	41.1	24.0	13.9	7.2	4.2	1.2
한시근로	944	903	1,179	875	363	373	25.9	25.7	25.6	21.9	18.3	13.8
(기간제)	592	735	1,070	823	348	365	16.2	20.9	23.2	20.6	17.6	13.5
시간제근로	1,255	711	702	362	122	101	34.4	20.3	15.2	9.1	6.2	3.7
호출근로	385	293	162	40	10	5	10.6	8.3	3.5	1.0	0.5	0.2
특수고용	115	53	158	141	26	6	3.2	1.5	3.4	3.5	1.3	0.2
파견용역	127	193	216	114	49	17	3.5	5.5	4.7	2.9	2.5	0.6
(파견)	25	37	47	33	16	6	0.7	1.1	1.0	0.8	0.8	0.2
(용역)	102	156	169	81	33	11	2.8	4.4	3.7	2.0	1.7	0.4
가내근로	30	4	7	1	2	5	0.8	0.1	0.2	0.0	0.1	0.2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이 2019년 8월 331만 원에서 2020년 8월 336만 원으로 5만원(1.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71만 원에서 173만 원으로 2만 원(1.0%)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1.8%에서 51.5%로 0.3%p 확대되었다([그림 10]과 [표 9] 참조).

[그림 10]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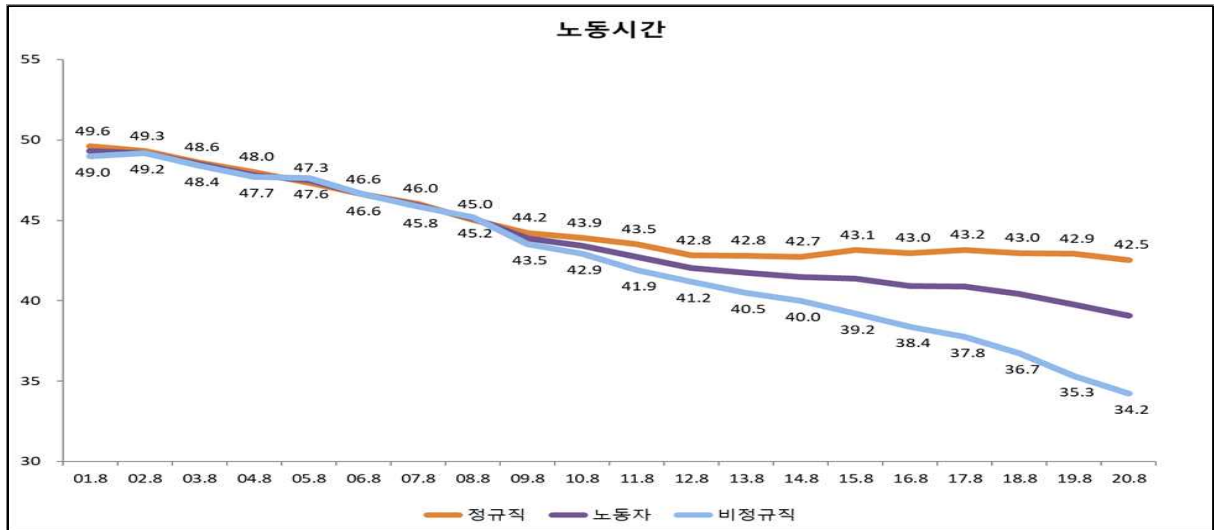
[표 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 (정규직=100)

	금액(만 원)					격차(%)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임금노동자	237	242	256	264	268	77.4	79.2	79.8	79.9	79.8
정규직	306	306	321	331	336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51	156	163	171	173	49.2	51.0	50.7	51.8	51.5
임시근로	150	155	161	170	172	48.9	50.7	50.2	51.4	51.1
장기임시근로	141	150	155	164	160	46.2	48.9	48.3	49.5	47.6
한시근로	160	162	168	175	180	52.3	52.9	52.5	52.9	53.7
(기간제근로)	166	170	176	181	188	54.1	55.7	55.0	54.6	55.9
시간제근로	74	80	87	93	90	24.2	26.2	27.1	28.0	26.9
호출근로	137	154	159	164	161	44.9	50.4	49.7	49.7	47.9
특수고용	200	215	201	217	215	65.4	70.4	62.8	65.5	64.0
파견용역	152	160	176	187	196	49.8	52.4	54.8	56.6	58.5
(파견)	174	175	193	207	217	57.0	57.1	60.3	62.7	64.7
(용역)	146	156	170	181	190	47.8	51.1	53.0	54.8	56.6
가내근로	78	77	98	93	111	25.4	25.2	30.6	28.3	33.0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2년 8월 42.8시간으로 6.8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2020년 8월에도 42.5시간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49.0시간에서 2014년 8월 40.0시간으로 9.0시간 단축되었고, 2020년 8월에는 34.2시간으로 다시 5.8시간 감소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정규직(6.2%)이 정규직(5.2%)보다 많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자는 2019년 8월 93만 명(4.5%)에서 2020년 8월 99만 명(4.9%)으로 증가했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노동도 335만 명(16.3%)에서 356만 명(17.4%)으로 증가했다([그림 11]과 [표 10] 참조).

[그림 1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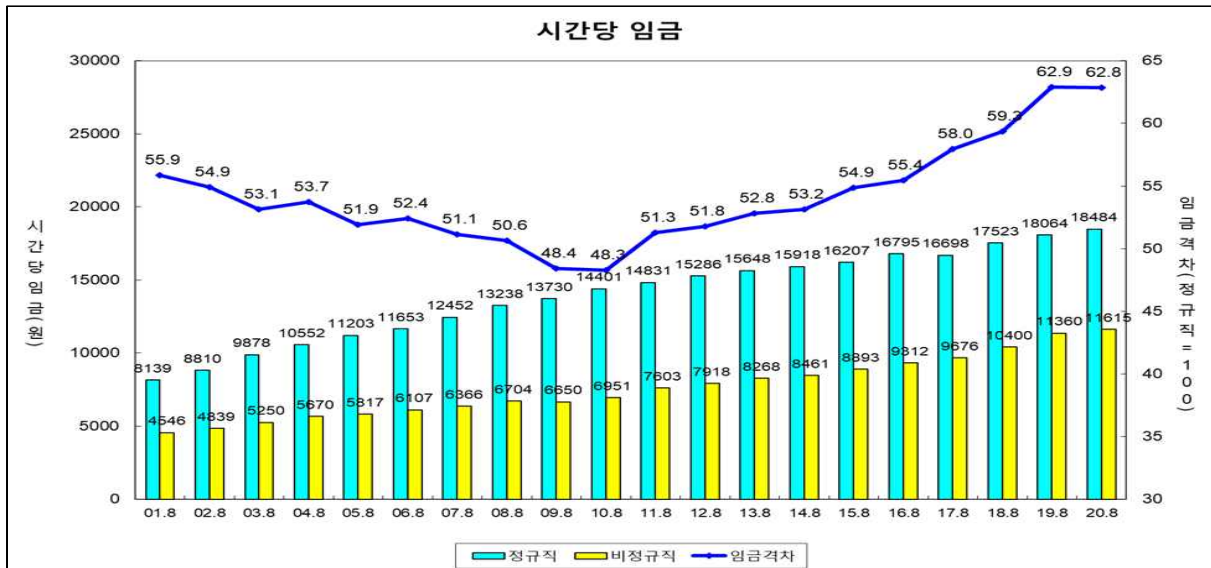
[표 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20년 8월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임금노동자	40.9	40.9	40.4	39.8	39.1	4.9	12.6	58.0	2.0	10.5	6.5	5.6
정규직	43.0	43.2	43.0	42.9	42.5		0.7	72.6	2.3	11.7	7.5	5.2
비정규직	38.4	37.8	36.7	35.3	34.2	11.7	29.2	37.4	1.5	8.9	5.1	6.2
임시근로	38.4	37.8	36.9	35.5	34.4	12.3	26.9	38.4	1.6	9.1	5.2	6.4
장기임시근로	39.6	39.0	38.4	36.6	35.3	8.4	31.6	34.9	1.6	9.5	6.4	7.6
한시근로	36.9	36.3	35.2	34.5	33.7	15.1	23.5	41.0	1.6	8.7	4.4	5.6
(기간제근로)	36.9	36.7	35.2	34.7	34.0	15.3	20.8	43.9	1.5	8.8	4.4	5.3
시간제근로	20.8	20.8	20.5	20.0	19.6	30.4	69.3	0.2			0.0	
호출근로	37.7	37.8	37.1	36.1	35.6	5.6	32.9	40.4	0.9	10.7	6.0	3.5
특수고용	39.3	40.2	40.3	38.9	39.0	3.0	19.5	55.6	1.4	7.0	5.2	8.2
파견용역	42.5	42.9	42.3	41.5	40.9	2.7	18.4	45.7	2.4	12.3	7.3	11.3
(파견)	39.1	39.3	39.7	39.8	39.0	5.5	17.6	49.7	0.6	13.3	7.3	6.1
(용역)	43.5	43.8	43.2	42.1	41.5	1.8	18.7	44.4	3.1	11.8	7.4	12.9
가내근로	30.1	27.8	31.4	28.1	28.3	26.0	30.0	24.0	6.0	6.0	6.0	2.0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평균 임금이 2019년 8월 18,064원에서 2020년 8월 18,484원으로 420원(2.3%) 상승했고, 비정규직은 11,360원에서 11,615원으로 255원(2.2%) 상승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62.9%에서 62.8%로 0.1%p 확대되었다([그림 12]와 [표 11] 참조).

[그림 1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단위: 원, %)



[표 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 (정규직 = 100)

	금액(원)					격차(%)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임금노동자	13,464	13,722	14,607	15,274	15,627	80.2	82.2	83.4	84.6	84.5
정규직	16,795	16,698	17,523	18,064	18,484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9,312	9,676	10,400	11,360	11,615	55.4	58.0	59.3	62.9	62.8
임시근로	9,204	9,553	10,212	11,144	11,414	54.8	57.2	58.3	61.7	61.8
장기임시근로	8,427	8,976	9,465	10,610	10,561	50.2	53.8	54.0	58.7	57.1
한시근로	10,216	10,297	11,076	11,584	12,037	60.8	61.7	63.2	64.1	65.1
(기간제근로)	10,570	10,716	11,531	11,861	12,364	62.9	64.2	65.8	65.7	66.9
시간제근로	8,984	9,183	10,157	11,083	10,827	53.5	55.0	58.0	61.4	58.6
호출근로	8,413	9,314	9,856	10,719	10,511	50.1	55.8	56.2	59.3	56.9
특수고용	11,877	12,254	11,548	13,076	12,725	70.7	73.4	65.9	72.4	68.8
파견용역	8,735	8,997	9,862	10,535	11,225	52.0	53.9	56.3	58.3	60.7
(파견)	10,234	10,843	11,402	11,932	12,635	60.9	64.9	65.1	66.1	68.4
(용역)	8,302	8,500	9,373	10,122	10,806	49.4	50.9	53.5	56.0	58.5
가내근로	6,590	7,114	7,600	8,404	9,926	39.2	42.6	43.4	46.5	53.7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시간당 임금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9년 8월 15,274원에서 2020년 8월 15,627원으로 353원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7,368원에서 7,599원으로 231원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26,480원에서 27,632원으로 1,152원 증가했다. 상위10% 컷오프와 하위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3.59배에서 3.64배로 감소했다.

월 임금총액 평균값은 2019년 8월 264만 원에서 2020년 8월 268만 원으로 4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총액은 89만 원에서 80만원으로 9만원 감소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총액은 48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 컷오프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격차(P9010)는 5.39배에서 6.25배로 치솟았다([표 12] 참조).

[표 12] 연도별 임금불평등

	시간당 임금(원)					월 임금총액(만 원)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평균값	13,464	13,722	14,607	15,274	15,627	237	242	256	264	268
하위 10%	5,757	5,987	6,908	7,368	7,599	80	80	90	89	80
50%	10,788	11,513	11,513	12,434	13,040	200	200	210	230	240
90%	25,041	24,753	25,905	26,480	27,632	450	450	454	480	500
p9010	4.35	4.13	3.75	3.59	3.64	5.63	5.63	5.04	5.39	6.25
p5010	1.87	1.92	1.67	1.69	1.72	2.50	2.50	2.33	2.58	3.00
p9050	2.32	2.15	2.25	2.13	2.12	2.25	2.25	2.16	2.09	2.08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2020년 8월 월 평균임금이 여자(206만 원)는 남자(318만 원)의 64.7%고, 비정규직(173만 원)은 정규직(336만 원)의 51.5%다. 남자 정규직 임금(373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213만 원)은 57.2%, 여자 정규직(274만 원)은 73.5%, 여자 비정규직은(138만 원)은 37.1%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시간당 임금 격차는 [표 13] 참조).

[표 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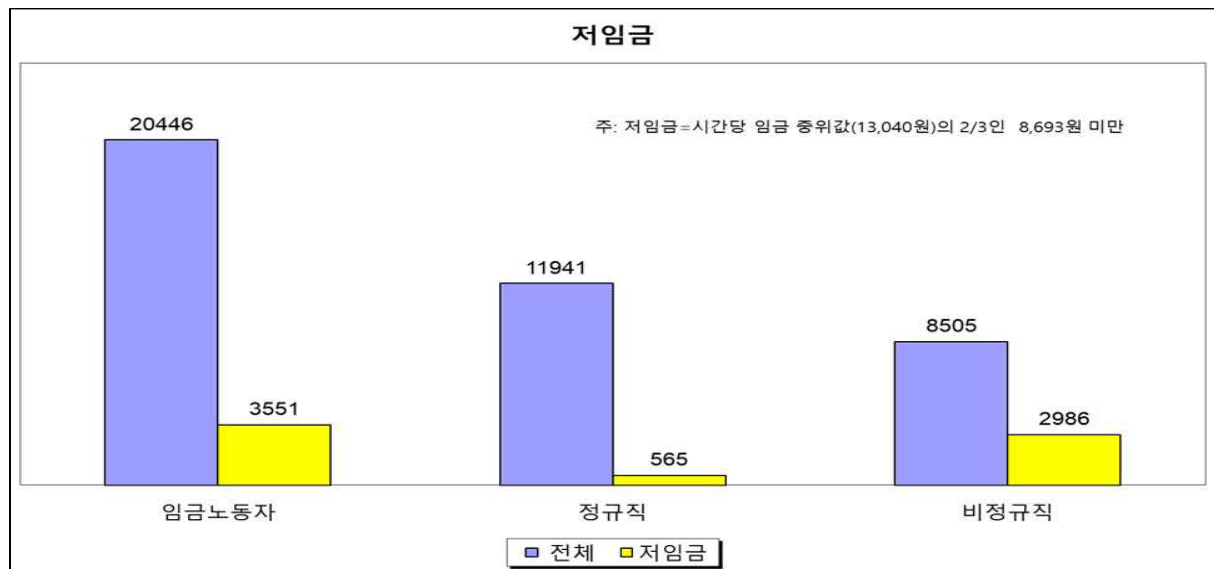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남자	15,741	15,878	16,781	17,410	17,788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10,555	10,996	11,870	12,618	12,924	67.1	69.3	70.7	72.5	72.7
정규직	16,795	16,698	17,523	18,064	18,484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9,312	9,676	10,400	11,360	11,615	55.4	58.0	59.3	62.9	62.8
남자정규직	18,773	18,584	19,445	20,012	20,392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비정규직	10,509	10,727	11,422	12,419	12,846	56.0	57.7	58.7	62.1	63.0
여자정규직	13,278	13,412	14,247	14,831	15,330	70.7	72.2	73.3	74.1	75.2
여자비정규직	8,284	8,804	9,556	10,471	10,562	44.1	47.4	49.1	52.3	51.8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3,040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8,693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45만 명 가운데 355만 명(17.4%)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57만 명(4.7%), 비정규직은 299만 명(35.1%)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20명 중 1명, 비정규직은 3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데, 2017년 8월 21.5%에서 2018년 8월 15.7%, 2019년 8월 15.8%로 뚜렷 떨어졌던 저임금계층 비율이 2020년 8월에는 17.4%로 증가했다([그림 13]과 [표 14] 참조).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40만 원)의 3분의 2’인 ‘160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45만 명 가운데 434만 명(21.2%)이 저임금 계층이다([표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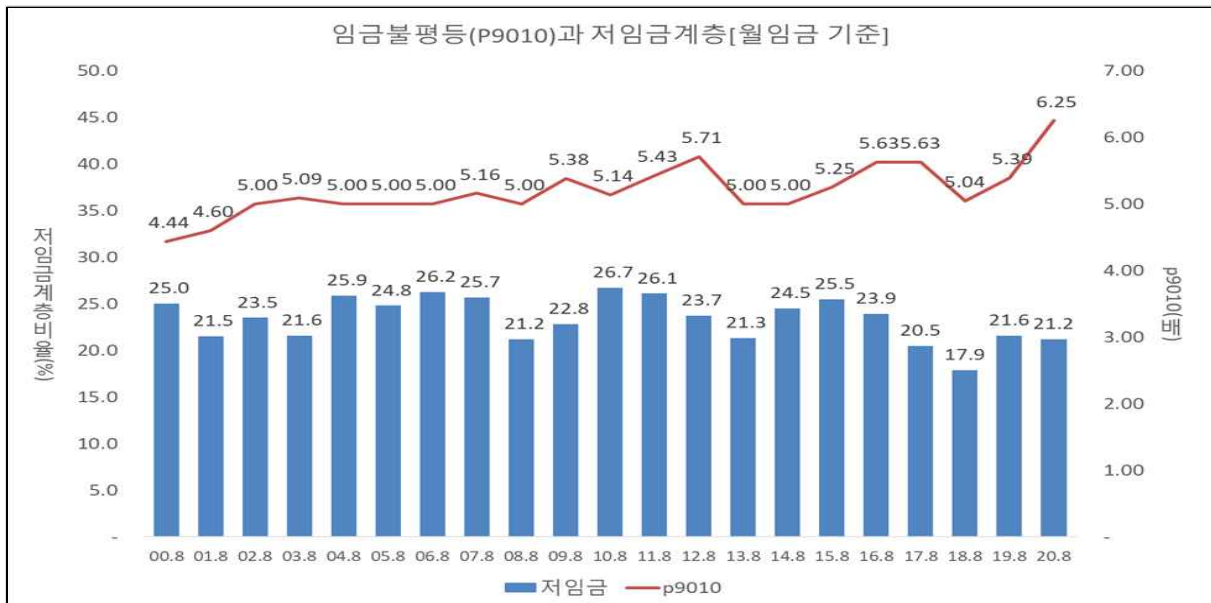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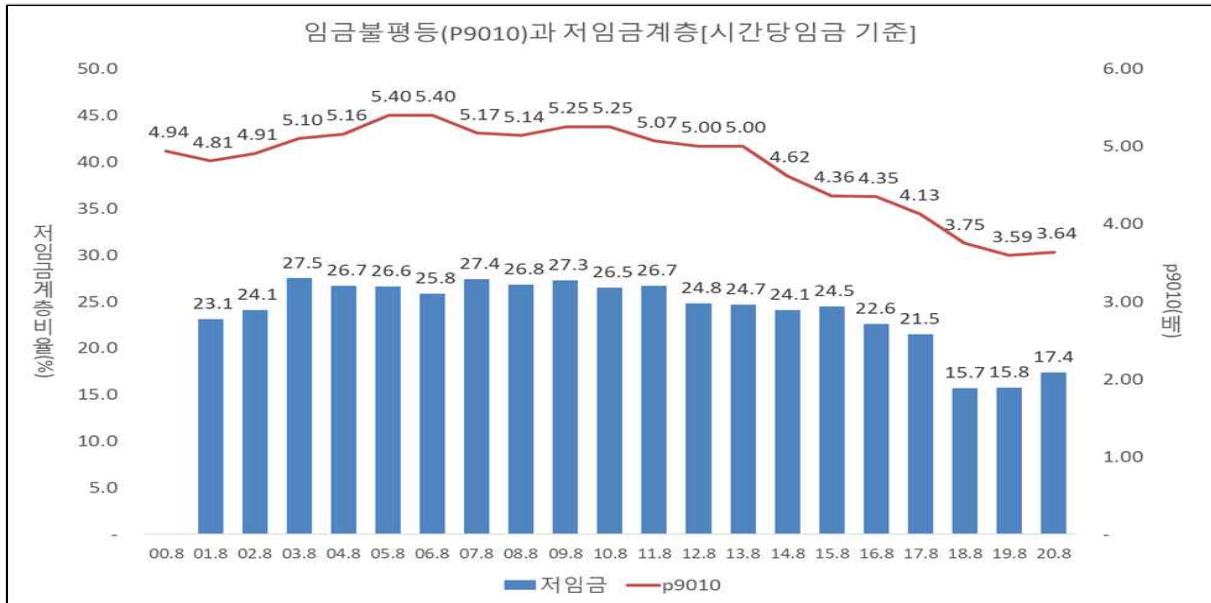
[그림 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2020년 8월, 단위: 천 명)



[표 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시간당 임금 기준					월 임금총액 기준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저임금	22.6	21.5	15.7	15.8	17.4	23.9	20.5	17.9	21.6	21.2
중간임금	51.1	56.6	60.1	60.8	60.0	48.4	50.4	57.3	55.4	58.1
고임금	26.3	21.9	24.1	23.5	22.7	27.8	29.0	24.8	23.0	20.7

[그림 14] 임금불평등(P9010)과 저임금 계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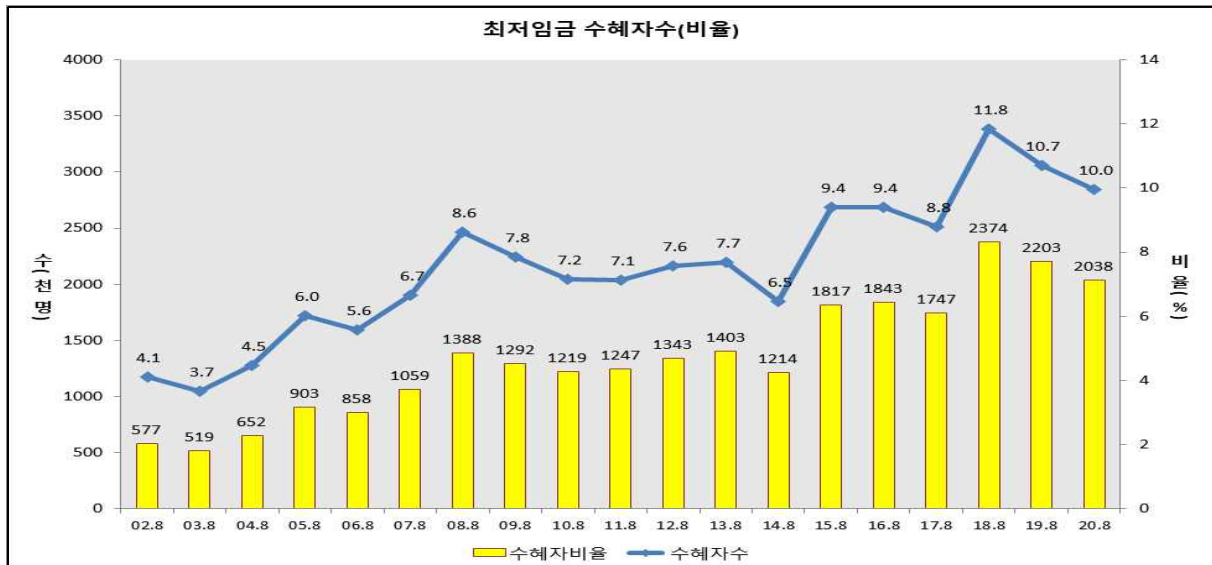


6.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20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¹⁾는 204만 명(전체 노동자의 10.0%)이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003년 52만 명(3.7%)에서 2008년 139만 명(8.6%)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9년에는 129만 명(7.8%), 2010년에는 122만 명(7.2%)으로 감소했고,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140만 명(7.7%)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121만 명(6.5%)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182~184만 명(9.4%)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8월에는 175만 명(8.8%)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8년 8월에는 237만 명(11.8%)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8월에는 220만 명(10.7%), 2020년 8월에는 204만 명(10.0%)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그림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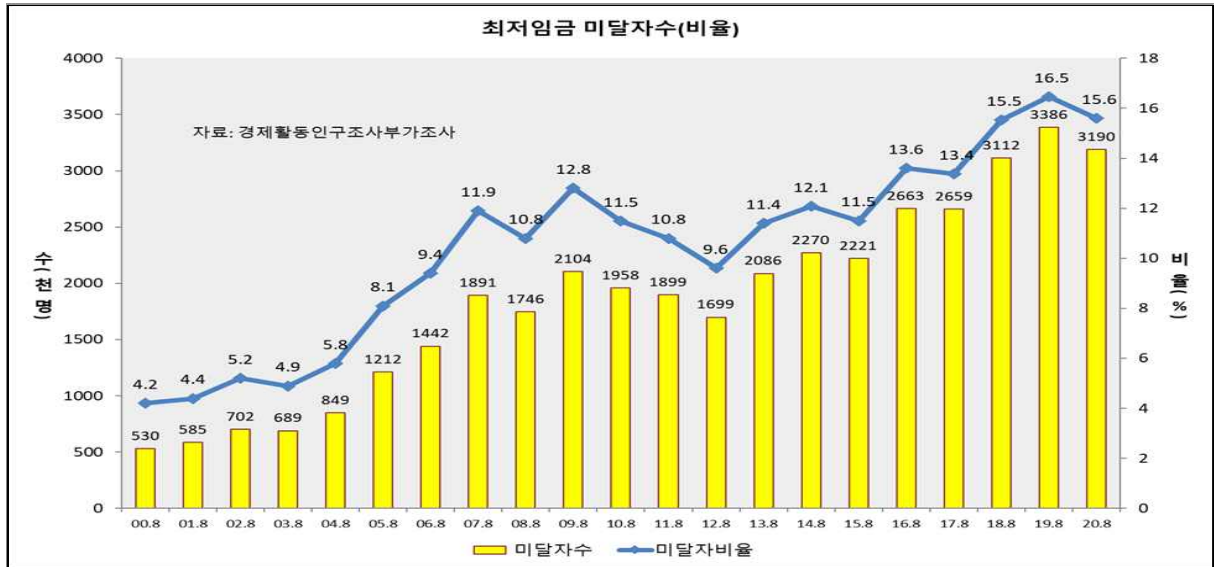
[그림 15] 최저임금 수혜자 추이 (단위: 천 명, %)



2020년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319만 명(15.6%)이다. 연도별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59만 명(4.4%)에서 2009년 210만 명(12.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17년에는 266만 명(13.6%), 2018년에는 311만 명(15.5%), 2019년에는 339만 명(16.5%)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319만 명(15.6%)으로 감소했다([그림 16] 참조).

1)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ILO(2013)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한다.

[그림 1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추이 (단위: 천 명, %)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8,590원) 미달자는 2만 명(1.1%)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96만 명(44.8%)이며, 2020년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2021년 최저임금(8,72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8만 명(3.5%)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는 등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표 15] 참조).²⁾

[표 15] 시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분포 (단위: 천 명, %)

	최저임금 미달	8590원	8591~8719원	8720~9000원	9001~1만원	1만원 초과	유효 합계	결측치	전체
수(천 명)	23	963	75	456	285	295	2,098	52	2,150
비율(%)	1.1	44.8	3.5	21.2	13.3	13.7	97.6	2.4	100.0
유효비율(%)	1.1	45.9	3.6	21.7	13.6	14.1	100.0		
누적비율(%)	1.1	47.0	50.6	72.3	85.9	100.0			

2) [그림 16]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319만 명(15.6%)인데, [표 15]에서 시급제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만 명(1.1%)밖에 안 된다는 위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것은 시급제는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노사 모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어 잘 지켜지는데 비해, 월급제 등 다른 임금지급형태는 임금구성이 복잡해 노사 모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분명히 알기 어려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과, 시간당 임금(월임금총액÷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통계상 허수가 많다는 점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림 16]에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수(비율)는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정도로 한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68.6%)와 연봉제(27.9%) 비중이 96.5%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46.6%), 시급제(22.6%), 일급제(16.1%), 실적급제(8.1%), 연봉제(5.8%)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48.1%), 월급제(33.8%), 일급제(11.5%), 실적급제(4.0%) 순으로, 가내근로는 실적급제(36.7%), 월급제(28.6%), 시급제(22.4%)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이에 비해 호출근로는 일급제(82.9%),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0%), 파견용역은 월급제(72.1%)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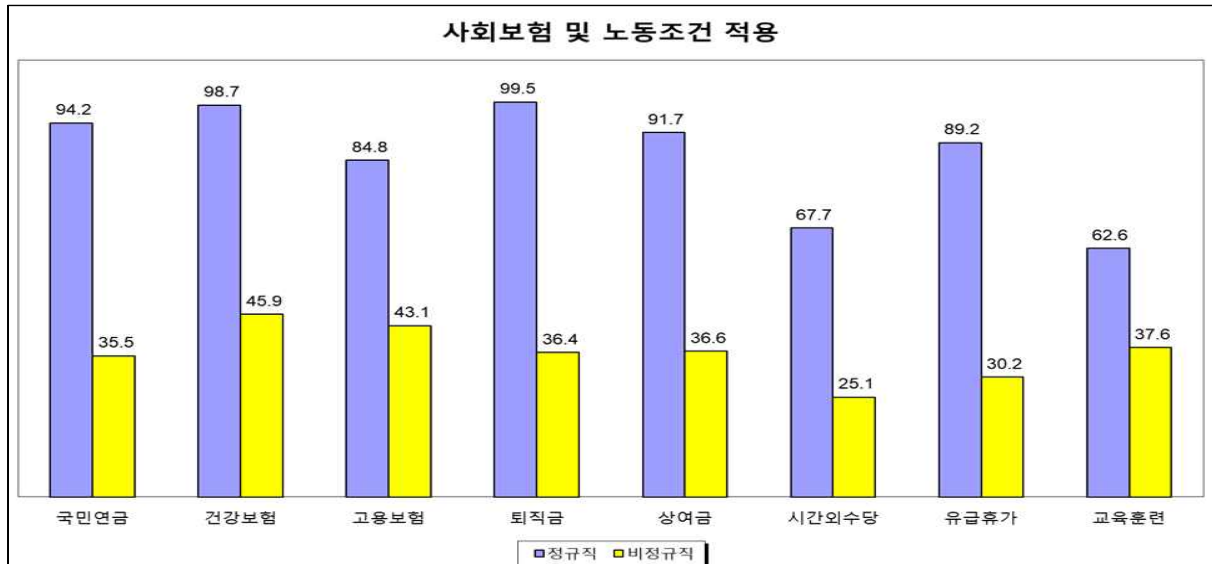
[표 16]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20년 8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10.5	7.1	0.3	59.5	18.7	3.8	0.0	100.0
정규직	1.9	0.6	0.0	68.6	27.9	0.8	0.1	100.0
비정규직	22.6	16.1	0.8	46.6	5.8	8.1	0.0	100.0
임시근로	23.1	17.0	0.8	45.3	5.5	8.3	0.0	100.0
장기임시근로	20.8	29.6	1.2	31.6	0.1	16.7		100.0
한시근로	24.7	7.9	0.5	55.2	9.5	2.2	0.0	100.0
(기간제근로)	22.7	5.8	0.3	58.5	11.1	1.5	0.1	100.0
시간제근로	48.1	11.5	1.0	33.8	1.6	4.0	0.0	100.0
호출근로	12.4	82.9	0.9			3.8		100.0
특수고용						100.0		100.0
파견용역	11.0	11.3	0.4	72.1	3.9	1.3		100.0
(파견)	12.1	12.7		61.8	9.1	4.2		100.0
(용역)	10.7	10.9	0.5	75.2	2.4	0.4		100.0
가내근로	22.4	6.1		28.6	6.1	36.7		100.0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5~99%인데, 비정규직은 36~46%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68~10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5~37%만 적용받고 있다([그림 17]과 [표 17] 참조).

[그림 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20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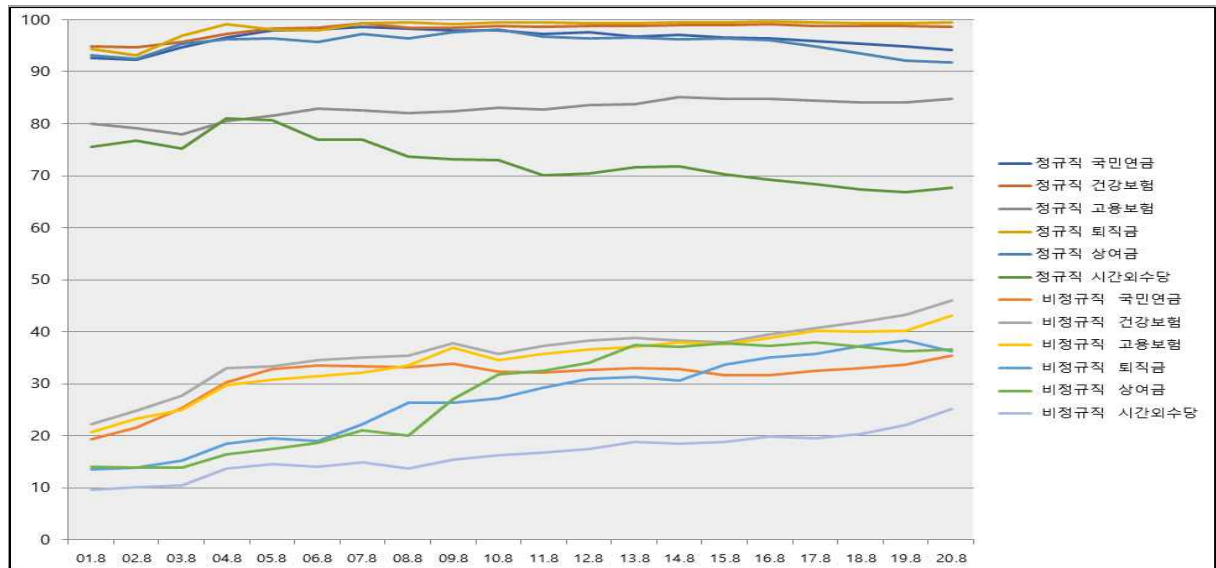
[표 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20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 경험
임금노동자	69.8	76.7	67.5	73.2	68.8	50.0	64.6	52.2
정규직	94.2	98.7	84.8	99.5	91.7	67.7	89.2	62.6
비정규직	35.5	45.9	43.1	36.4	36.6	25.1	30.2	37.6
임시근로	33.2	43.1	40.8	32.8	33.9	23.6	27.8	37.1
장기임시근로	13.3	16.8	19.3	8.5	20.9	11.3	5.7	20.7
한시근로	47.8	62.3	56.4	50.5	43.4	32.6	44.0	49.0
(기간제근로)	53.8	69.8	62.5	57.7	48.3	35.7	50.7	55.1
시간제근로	20.5	28.9	27.6	21.2	22.7	15.2	14.5	35.5
호출근로	0.4	0.5	6.5	0.1	2.5	8.0	0.5	11.1
특수고용	4.6	4.9	7.6	4.6	16.3	1.8	2.7	53.3
파견용역	44.7	79.8	64.2	70.3	54.3	40.4	56.3	42.8
(파견)	58.8	76.0	72.6	70.5	51.0	47.1	62.2	49.5
(용역)	40.5	81.0	61.9	70.2	55.3	38.4	54.6	40.8
가내근로	21.3	19.2	22.4	15.3	31.0	1.8	17.1	26.9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2~99%에 이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4~85%, 유급휴가 적용률은 89%,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68%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20년 36~46%로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25~37%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정채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림 18]과 [표 18] 참조).

[그림 18]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 18]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국민연금	96.4	95.9	95.3	94.9	94.2	31.7	32.5	33.0	33.8	35.5
건강보험	99.1	98.8	98.8	98.8	98.7	39.6	40.8	41.9	43.3	45.9
고용보험	84.7	84.5	84.1	84.0	84.8	38.9	40.2	40.0	40.2	43.1
퇴직금	99.6	99.6	99.3	99.3	99.5	35.1	35.8	37.2	38.4	36.4
상여금	96.1	94.8	93.4	92.1	91.7	37.3	38.0	37.1	36.2	36.6
시간외수당	69.2	68.4	67.4	66.8	67.7	20.0	19.6	20.3	22.1	25.1
유급휴가	88.8	88.2	88.7	88.5	89.2	24.6	24.5	25.3	27.1	30.2
교육훈련경험	71.4	70.1	69.0	65.6	62.6	39.0	38.4	38.5	37.5	37.6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45.9%), 지역가입(26.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3.5%), 의료수급권자(1.6%) 등 97.4%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5.5%)과 지역가입(14.6%)을 합쳐도 가입률이 50.1%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1.3%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3.9%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5.9%에 이른다([표 19] 참조).

[표 1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20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미가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23.7	69.8	6.5	1.1	76.7	11.5	0.7	10.0	25.5	67.5	7.0
정규직	5.1	94.2	0.7	0.0	98.7	0.9	0.1	0.4	3.9	84.8	11.3
비정규직	49.9	35.5	14.6	2.6	45.9	26.4	1.6	23.5	55.9	43.1	1.0
임시근로	51.5	33.2	15.3	2.7	43.1	27.8	1.7	24.7	58.3	40.8	0.9
장기임시근로	60.6	13.3	26.2	4.1	16.9	46.6	1.7	30.7	80.4	19.3	0.2
한시근로	44.9	47.7	7.4	1.7	62.3	14.0	1.7	20.3	42.2	56.4	1.4
(기간제근로)	41.1	53.8	5.1	1.0	69.8	10.1	1.5	17.6	35.8	62.5	1.7
시간제근로	68.2	20.5	11.3	3.0	28.9	25.0	2.8	40.3	71.7	27.6	0.7
호출근로	68.8	0.4	30.8	5.1	0.6	62.1	2.0	30.2	93.4	6.5	0.1
특수고용	45.0	4.6	50.4	1.6	4.8	67.4	1.2	24.9	92.2	7.6	0.2
파견용역	48.9	44.7	6.4	1.0	79.8	10.0	0.7	8.5	35.8	64.2	
(파견)	34.5	58.8	6.7	0.6	75.8	10.3	2.4	10.9	27.4	72.6	
(용역)	53.0	40.5	6.5	1.1	80.8	10.1	0.2	7.8	38.1	61.9	
가내근로	69.4	20.4	10.2	6.1	18.4	26.5	4.1	44.9	75.5	22.4	2.0

9. 근속년수

2020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6.0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6년으로 0.2년 길어졌고, 비정규직은 2.3년으로 변함이 없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3.8%인데 비정규직은 55.6%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한 것을 말해준다([표 20] 참조).

[표 20]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2020년 8월, 단위: %)

	근속년수		분포(%)					
	평균값	중위값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임금노동자	6.0	2.6	31.2	12.7	8.8	10.9	14.6	21.8
정규직	8.6	5.4	13.8	11.5	9.5	13.0	19.1	33.2
비정규직	2.3	0.7	55.6	14.4	7.9	8.0	8.4	5.7
임시근로	2.1	0.6	57.6	14.4	7.8	7.7	7.4	5.1
장기임시근로	2.0	0.5	60.0	13.5	7.8	7.2	6.7	4.7
한시근로	2.3	0.7	55.9	15.1	7.7	8.0	7.9	5.4
(기간제근로)	2.4	0.8	53.5	15.3	8.0	8.7	8.5	6.0
시간제근로	1.7	0.5	65.3	12.4	6.6	6.2	6.2	3.3
호출근로	0.1	0.0	98.8	0.4	0.3	0.2	0.2	0.0
특수고용	5.5	3.0	26.9	12.2	10.6	14.3	15.7	20.3
파견용역	3.0	1.5	41.9	15.8	10.6	10.3	14.7	6.7
(파견)	3.2	1.2	46.0	15.3	10.4	8.6	10.4	9.2
(용역)	2.9	1.6	40.8	16.0	10.7	10.9	15.8	5.8
가내근로	2.5	0.4	61.2	4.1	8.2	8.2	14.3	4.1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10.5%, 비정규직이 44.4%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6.3%), ‘근로조건 만족’(39.6%) 순으로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3.9%)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4.7%)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0.7%), 장기임시근로(53.0%), 시간제근로(49.3%), 파견용역(47.6%), 기간제근로(36.7%), 특수고용(31.9%) 순이다([표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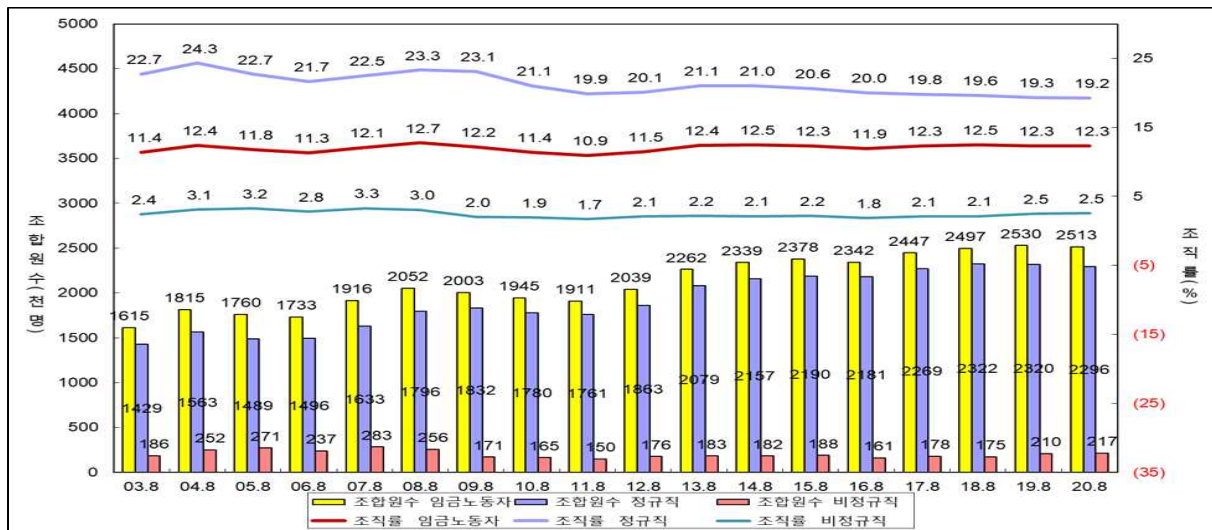
[표 21]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20년 8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 취업	근로조건 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75.4	24.6	36.3	32.1	7.1	18.9	2.5	1.0	2.2
정규직	89.5	10.5	39.6	46.3	3.6	8.2	1.0	0.7	0.6
비정규직	55.6	44.4	31.5	12.1	12.0	33.9	4.7	1.4	4.5
임시근로	54.4	45.6	30.8	11.4	12.2	34.8	4.8	1.4	4.6
장기임시근로	47.0	53.0	25.2	6.6	15.2	41.9	4.8	1.3	5.0
한시근로	59.8	40.2	34.9	14.8	10.0	29.7	4.8	1.5	4.3
(기간제근로)	63.3	36.7	37.3	16.9	9.0	27.4	4.6	1.3	3.4
시간제근로	50.7	49.3	30.3	5.3	15.1	35.2	5.9	1.8	6.5
호출근로	19.3	80.7	10.6	0.9	7.8	70.6	4.8	1.7	3.7
특수고용	68.1	31.9	30.1	6.4	31.5	23.1	3.2	1.0	4.6
파견용역	52.4	47.6	29.6	18.3	4.5	41.4	3.6	1.0	1.6
(파견)	66.7	33.3	34.9	23.5	8.2	29.5	1.8	0.6	1.4
(용역)	48.2	51.8	27.9	16.7	3.6	44.9	4.2	1.1	1.6
가내근로	53.1	46.9	35.4	4.2	13.5	31.3	6.3	0.0	9.4

11. 노조 조직률

조합원 수(조직률)는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 191만 명(10.9%)까지 감소했다.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34만 명(12.5%)으로 3년 만에 43만 명(1.6%p) 증가했고, 2015~16년에는 234~238만 명(12.3~12.5%)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8월에는 245만 명(12.3%)으로 1년 만에 11만 명(0.4%p) 증가했고, 2018년 8월에는 250만 명(12.5%)으로 5만 명(0.2%p) 증가했으며, 2019년 8월에는 253만 명(12.3%)으로 다시 3만 명(-0.2%p)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 8월에는 251만 명으로(12.3%) 2만 명 감소했다. 조합원 251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230만 명(19.2%)이고 비정규직은 22만 명(2.6%)이다([그림 19]와 [표 22] 참조).

[그림 19]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표 22]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202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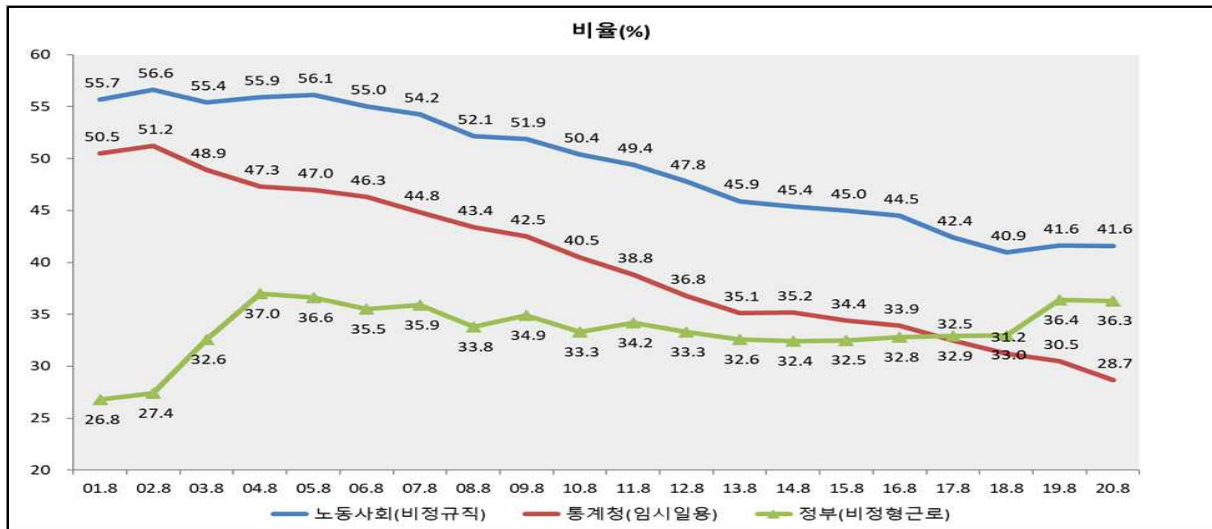
	수(천 명)				비율(%)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 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노조없음	노조유. 가입대상 아님	노조유.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임금노동자	15,111	1,454	1,368	2,513	73.9	7.1	6.7	12.3
정규직	7,686	765	1,194	2,296	64.4	6.4	10.0	19.2
비정규직	7,425	689	174	217	87.3	8.1	2.0	2.6
임시근로	7,033	668	146	176	87.7	8.3	1.8	2.2
장기임시근로	3,263	89	15	19	96.4	2.6	0.4	0.6
한시근로	3,770	579	131	157	81.3	12.5	2.8	3.4
(기간제근로)	3,098	552	130	153	78.8	14.0	3.3	3.9
시간제근로	2,883	275	47	47	88.7	8.5	1.4	1.4
호출근로	883	13	-	-	98.5	1.5	-	-
특수고용	458	37	-	2	92.2	7.4	-	0.4
파견용역	638	30	16	32	89.1	4.2	2.2	4.5
(파견)	139	4	9	12	84.8	2.4	5.5	7.3
(용역)	499	26	7	20	90.4	4.7	1.3	3.6
가내근로	47	1	1	-	95.9	2.0	2.0	-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2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³⁾는 743만 명(36.3%), 노동사회연구소는 850만 명(41.6%)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54.2%)부터 2018년 8월(40.9%)까지 꾸준히 감소했고, 2019년 8월(41.6%)에 조금 증가한 뒤 2020년 8월(41.6%)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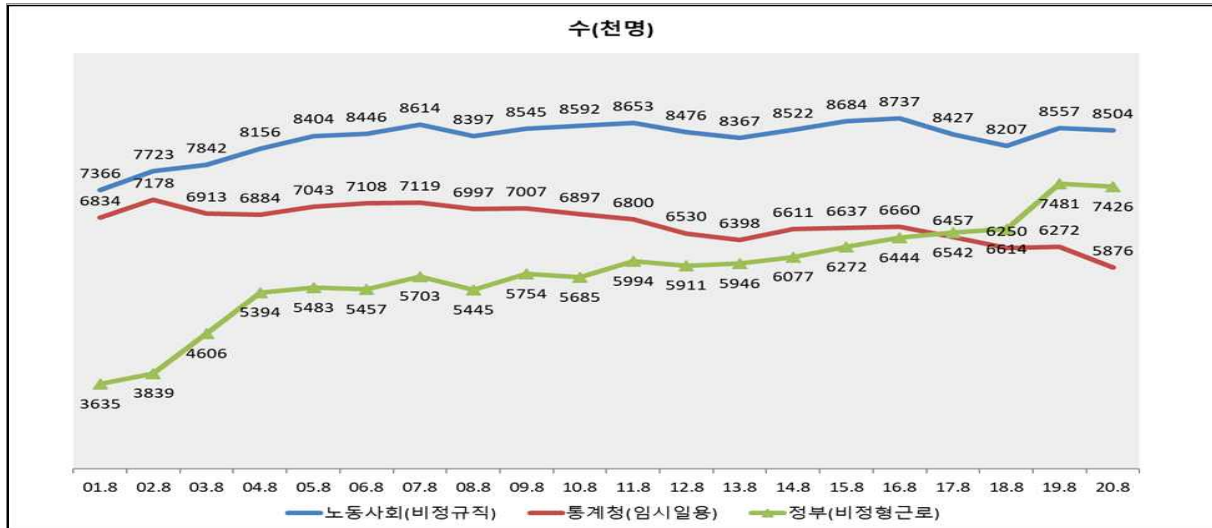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3~18년에는 32~33%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 8월에는 36.4%로 1년 만에 3.4%p 증가했고, 2020년 8월에는 36.3%로 0.1%p 감소했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비정규직 규모 추이



3)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그림 20] 비정규직 규모 추이(계속)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 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 23]에서 ②+③). 그 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118만 명(①)이 실제로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588만 명(28.7%)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273만 명(13.4%)을 합쳐 850만 명(41.6%)으로 추계했다([표 23]에서 ①+②+③).⁵⁾

4)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5) 정부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계제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표 23]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20년 8월, 단위: 천 명, %)

			본 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조사	설문문항 없음 (정형)	④ 11,839(57.9)	① 1,181(5.8)	①+④ 13,020(63.7)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2,731(13.4)	② 4,695(23.0)	②+③ 7,426(36.3)	
소계			③+④ 14,570(71.3)	①+② 5,876(28.7)	20,446(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118만 명, 즉, ‘정형-임시일용’(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49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44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1만 70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44.7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3.4%)와 중졸이하(17.2%)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6~32%,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적용률은 11~39%로 매우 낮다.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16.1%로 가장 낮다([표 24] 참조).

[표 24]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18년8월				2019년8월				2020년8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 수(천 명)	1,593	4,657	1,957	11,838	1,076	5,196	2,285	12,002	1,181	4,695	2,731	11,83
비율(%)	7.9	23.2	9.8	59.1	5.2	25.3	11.1	58.4	5.8	23.0	13.4	57.9
저임금계층(천명)	703	1,755	239	453	513	1,954	298	477	494	2,172	327	558
최저임금미만(천명)	694	1,738	233	446	539	2,016	320	510	439	2,000	280	471
월 평균임금(만원)	179	128	225	321	193	136	241	332	193	133	237	336
시간당 임금(원)	8,955	9,700	13,339	17,523	9,783	10,552	14,270	18,137	10,070	10,513	14,270	18,522
주노동시간(시간)	46.8	30.9	40.2	43.0	46.4	30.1	40.1	42.9	44.7	28.9	39.2	42.5
근속년수(년)	2.7	1.7	4.0	8.6	2.5	1.4	4.3	8.5	2.5	1.4	4.3	8.5
기혼여자비율(%)	37.6	43.1	41.6	23.7	36.2	43.1	38.9	23.9	33.4	43.1	40.3	24.4
중졸이하비율(%)	19.6	28.0	14.7	4.4	18.4	27.7	12.3	4.1	17.2	28.0	12.8	4.0
국민연금적용(%)	30.8	13.5	79.1	95.3	25.9	15.7	78.7	95.0	26.4	15.1	76.9	94.2
건강보험적용(%)	37.2	19.6	96.3	98.8	32.0	22.0	95.7	98.8	31.0	22.2	95.2	98.7
고용보험적용(%)	38.7	20.2	85.9	84.1	32.0	22.2	85.1	83.7	31.6	23.1	84.5	84.7
퇴직금적용(%)	32.9	12.4	97.2	99.3	30.2	13.4	97.0	99.3	16.5	7.6	96.7	99.5
상여금적용(%)	42.1	17.4	76.8	93.4	38.6	16.8	77.6	92.2	35.6	15.1	76.3	91.7
시간외수당(%)	10.5	10.7	51.4	67.4	11.3	13.1	49.3	67.0	14.1	13.2	52.2	67.7
유급휴가(%)	11.7	8.1	77.1	88.7	10.9	10.0	75.3	88.6	11.0	9.7	76.0	89.2
교육훈련경험(%)	21.9	33.4	65.6	69.0	21.2	32.7	57.1	65.9	16.1	33.7	54.2	62.6
노조조직률(%)	0.4	0.6	7.2	19.6	0.9	0.7	7.2	19.7	0.8	0.6	7.1	19.3